生死, 삼계 안과 밖 어디서 받을 것인가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㊸ 두 가지 죽음

〈원문〉

승만 부인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죽는 것이 있사오니,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하면, 하나는 분단(分段)으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의 하게 변역(不思議變易)하여 죽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죽는 것은 허망한 중생을 두고 한 말이요, 부사의 하게 변역하여 죽는 것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대력(大力) 보살들의 마음대로 태어나는 몸으로부터 위없는 보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죽는 것 중에 분단으로 죽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아라한 · 벽지불의 지혜를 일러서 태어나는 일이 다하였다 하고, 더 해야 할 수행이 남아 있는 과(有餘果)를 증득하였으므로 범행(梵行)이 이미 섰다 하였고, 범부인 인간세상 사람 · 천상의 사람으로는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일곱 가지 학인(學人)들로는 앞서 끊지 못하였던 허망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지을 것을 이미 이루었다 하고, 아라한 · 벽지불의 끊은 번뇌로도 다시 뒤의 몸(後有)을 받지는 아니하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을망정 온갖 번뇌를 모두 끊었고, 온갖 받을 몸을 모두 다하였으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번뇌는 아라한 · 벽지불로는 끊지 못할 것이 있는 까닭입니다."

〈강설〉

번뇌를 끊고 생사를 해탈한다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이다. 생사 해탈은 윤회를 벗어난다는 의미이며, 때로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인연에 의한 생멸법 현상인데 이 장에서는 나고 죽는 생사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분단생사와 부사의변역생사를 말하는데 분단생사는 중생들이 육도를 윤회하면서 유루(有漏)의 선악업을 인(因)으로 하고 번뇌의 장애(煩惱障)을 연(緣)으로 하여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 안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 과보가 수명의 장단이라든지 신체의 대소 등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단(分段)이라 한다. 이러한 분단을 받아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라 하고, 변역생사(變易生死)는 삼계 안에서 윤회하는 몸을 여의고 성불할 때까지 자기의 수행 정도에 따라 삼계 밖에서 받는 생사를 말한다. 미계(迷界)를 벗어나 오계(悟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생사를 말한다. 몸의 형태나 수명에 어떤 한계가 없는 생사이다. 번뇌가 없는 선정과 서원의 힘에 의해 미묘한 작용이 불가사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사의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라고 부사의를 앞에 붙여 말했다. 성문이나 벽지불 대력보살 등은 변역신의 상태에서 생사를 받는다 한다. 이 변역생사는 의생신으로써 생사를 받기 때문에 분단생사와 다르므로 실질적인 생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삼론종(三論宗)을 세운 길장(吉藏: 549~623)이 〈승만경〉을 주석한 〈승만보굴(勝鬘寶窟)〉에는 분단생사와 변역생사를 설명하기를 분단생사는 몸의 형태에 구별이 있고 수명에 한정된 기한이 있어 오래 살고 빨리 죽는 차이가 있으나 변역생사는 몸 형태의 구별이나 수명의 길고 짧음이 없고 다만 심신(心神)이 찰나마다 서로 전해지면서 앞에서 변하고 뒤에서 바뀐다고 하였다. 곧 심신(心神)이 찰나마다 변하고 바뀌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대로 받는 몸이기 때문에 심식(心識)으로 이루어진 의생신(意生身)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무명주지의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변역신으로 삼계 안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보살행을 닦아야 무상보리에 이르며, 무명주지번뇌는 오직 부처님만이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분단생사는 헛된 생사로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의 죽음인 반면, 변역생사는 업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의해 생을 받기 때문에 비록 번뇌를 완전히 다하지는 못했지만 번뇌에 의해 끄달림을 받지 않는 의생신으로 범부의 생사 경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리심 · 참회 · 대신심 · 대분심 · 대의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㊻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2. 깨달음을 위한 몸과 마음의 조절법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선정 · 삼매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면 이제부터는 깨달음 얻기 위한 몸과 마음의 조절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보리심(菩提心)이란 깨달음을 반드시 꼭 성취하고 말겠다는 각오에 찬 의지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대도를 성취하여 성불을 이룩하고 말겠노라는 대의지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을 발보리심(發菩提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각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救援)하고 일체의 악으로부터 구호(救護)하겠노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에 바탕을 둔 중생구호의 각오이며 서원인 것입니다.

이 서원과 발보리심은 불교에 있어서 모든 신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선정 · 삼매 수행을 할 때는 이 발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이타적인 서원과 발보리심의 의지가 수행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대승보살도의 실천수행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정 ·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영겁에 걸쳐 지은 악업과 불선업을 참회하고, 그 업력에 따른 장애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악업을 참회하고 업력의 장애를 제거하는 총체적 방법은 바로 예경 · 예불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제거하는 개별적 방식에는 참회나 권청(勸請) 그리고 수희(隨喜)와 회향(廻向) 등이 있습니다.

참회(懺悔)는 영겁에 걸쳐 지은 악업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으로 권청함으로써 정법을 비방한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라 기뻐하는 수희심을 일으키면 타인을 질투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에 회향하는 것을 통해 삼계에 집착한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경 · 참회 · 권청 · 수희 · 회향 등의 일체의 악업과 불선업을 제거하고 업의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기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대신심(大信心) · 대분심(大憤心) · 대의심(大疑心) 일으켜야

훌륭한 선정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큰 신심(信心)이 있어야 하고 둘째, 큰 분심(憤心)을 일으켜야 하고, 셋째는 큰 의심(疑心)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신심(大信心)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비록 업이 두터운 중생이지만 올바르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도 반드시 도업(道業)을 성취할 수 있다' 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정신(大正信) 즉 큰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옳게 닦아서 나도 성불할 수 있다' 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온갖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대분심(大憤心)을 일으킨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성현들께서는 모두 다 일대사 인연(一大事因緣)을 마치고 생사해탈을 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건만, 나는 어찌하여 아직도 무량겁 세월 동안을 윤회 속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 속을 헤매며 해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분하고 원통하구나!

이와 같이 자신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한 생각과 억울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한 마음이 없고 억울한 생각이 없으면 수행할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용맹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분심을 일으켜야만 용기가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용맹심이 생겨나서 생사해탈을 위해 분발하며 불퇴전의 의지로 생사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㊸ 마간디야의 경 2

몸과 마음은 그대가 아니다

"마간디야여, 이와 같이 나는 그대에게 '이것이 질병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가르침을 설한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 질병 없음을 알고 그 열반을 볼 것입니다. 그대에게 눈이 생겨나면, 다섯 가지 집착의 다발에 대한 탐욕이 버려질 것입니다. 그대에게 이와 같이 참으로 나는 오랜 세월 이 마음에 의해서 속고 기만당하고 미혹되었다. 나는 물질을 취해서 집착하고, 느낌을 취해서 집착하고, 지각을 취해서 집착하고, 형성을 취해서 집착하고, 의식을 취해서 집착했다."

몸과 마음을 '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뭇 삶에게 "몸과 마음은 그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뭇 삶은 과연 '무엇을 나라고 하여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일반적 사고의 신호체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문을 갖는 신호체계를 끊는 것이 진짜 '나[無]'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찰나지간에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되어, '몸과 마음 안에 신호체계를 끊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잇따른 희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희론은 상황을 바르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 하고 만다. 본질은 희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물질을 가지고 본질을 더듬는 일은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더듬어 코끼리의 모양을 말하는 것과 같다.

언어로써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순간 의식보다 빠른 보검으로 양변을 둘로 쪼개어 진실을 보는 눈을 드러낸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일상사가 사실이라는 생각의 바탕 위에 비친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허상에 펼쳐지는 현상들은 있다는 마음을 낼 수도 없고, 없다는 마음을 낼 수도 없는, 실재하는 자극이 없는데도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환각 같은 증상이다. 이러한 환각에서 깨어나면 증상은 잘못 알아 틀린 것이 아닌,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의 미혹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삶과 수행 속에서 겪게 되는 좌절이나 절망들은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꼭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내면에서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잠재한다. 오리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 한가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발놀림이 바쁜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엇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물질로 일어난 일에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안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이 아닌 그 현상만을 바르게 보는 마음이 생겨난다. 지금 씨앗이 있는지, 씨앗을 심을 땅이 있는지, 적당한 날씨에 심고 있는지, 열매가 익을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지 등 현상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특별히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사고에서의 객관적인 살핌이다. 어디에서 마음을 잘못 사용하는지를 알고, 그곳에서 무엇을 집착하는지를 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알고, 취하려는 힘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 저절로 놓아짐이 생겨나는 것이다.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보면 바른 견해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나[無]' 와 '나[無]아님' 이 분명하여 놓아짐 없이 놓아지는 현상들에 대해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을 안다. 지금 사대오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어떤 설명을 하고,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몸과 마음에 대해 바른 견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른 사유이자 바른 수행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몸과 마음으로 성취한 알았다는 견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다른 견해에 의해 무너지거나, 다른 뭇 삶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있다. 자신이 '나[我]' 라고 하는 '나[我]' 는, 자기 자신도 믿고 신뢰하기 어려워 틈만 나면 변경하고 수정하고 변화를 꾀하지만, 무엇이 끝인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두려워한다. 만약 이러한 '나[我]' 를 진짜 '나[無]' 로 안다면 이것이 질병을 만드는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속고 기만당하고 미혹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을 '나[我]' 라고 알지 않으니,
몸과 마음에 있는 질병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